

“금성산 산사태 막자” 민·관·군 뭉쳤다

나주시 합동 간담회…군사시설 관리·대응책 논의

강인규 시장 “산 정상 단계별 상시 개방” 의지 밝혀

나주 금성산 정상부의 산사태 발생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따른 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군의 공론의 장이 열려 주목된다.

나주시는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민관 공동위원회 금성산위원회와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주최로 ‘금성산 산사태 예방 관련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 간담회는 나주시 선도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및 시민공원화’를 위한 대인지리체계, 군부대 이전 논의, 산 정상 단계별 개방 등과

연계한 세부 과제로 마련됐다.

특히 발생 시 심각한 인명·재산피해를 일으키는 금성산 산사태 위험성을 진단하고 산사태 사각지대에 놓인 군사시설 위험 관리 방안과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는 박규권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금성산 산사태 관련 민관 합동조사 현장 영상 시청 및 브리핑, 전문가 주제발표, 참석자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금성산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도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대인지리 완전 제거에 따른

안전지대 조성, 산 정상 단계적 상시개방 추진, 산포 비상활주로 지정해지, 광주전 파관리소 이전 등을 추진해갈 것”이라며 “이에 더해 기후변화에 따른 금성산 산사태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민·관·군이 함께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뜻깊은 간담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민식 소장은 ‘금성산 산사태 위험진단 및 대책’을 주제로 ‘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예측’ 등 산림청 자료에 따른 금성산 산사태 위험성을 분석했다.

또 지난 7월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산사태 위험 4개 지점별 현장 브리핑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소장은 “금성산 정상부 군사시설, 진입도로 등이 산사태와 토석류 재해 위험에 상당부분 노출돼 집중호우 때 하류지역 인

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과 같은 구조물 설치 등 공군부대·군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와 산림청·지자체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장에 이어 서재철 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군사시설 산지재해 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후위기와 재해재난, 산사태와 산지재해, 산지재해의 사각지대, 나주 금성산 사태 위험,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안전은 위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금성산 산사태 위험의 실제적 파악과 기후위기 차원의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주시, 전남도, 산림청, 군부대 합동조사와 산사태 위험 정밀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공군부대는 자



나주시는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민관공동위원회 금성산위원회와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주최로 ‘금성산 산사태 예방 관련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나주시 제공

체 재해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하승환 대대장은 “산사태로 인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부대 자체 예방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오

고 있다”며 “사람을 최우선으로 금성산 산사태 위험성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민·관과의 공조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화순, 1차 접종률 70% 돌파
추석 전까지 군민 80% 목표

화순군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돌파했다. 2차 접종률도 40%를 넘어서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달 27일 현재 기준 전체 인구 6만2,522명 중 4만4,863명이 1차 접종을, 2만7,719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1차 접종률은 71.7%, 2차 접종률은 44.3%다.

60세 이상 고령층·요양 시설·고위험 병원 등 고위험군의 접종률은 애초 계획한 접종 대상자 대비 100%를 넘어섰다.

60세 이상 고령층 2만1,195명이 1차 접종, 1만3,845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 60세 이상 1차 접종자는 전체 1차 접종자(4만4,863명)의 47%를 차지한다. 50~59세 장년층 7,195명도 1차 접종했다.

6월 중순~7월 중순 다소 주춤했던 접종 속도는 8월 들어 눈에 띄게 빨라졌다.

화순군은 18~49세의 1차 접종과 50~74세 장년·고령층의 2차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추석 전까지 전군민의 80%가 1차 접종, 60%가 2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신 수급 등 변수가 없다면, 9월 말까지 ‘1차 접종률 85%, 2차 접종률 70%’ 달성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화순군은 보건 인력은 물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높은 접종률과 빠른 속도를 보여 왔다.

/화순=이종백 기자



장성군이 최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푸드플랜 통합조직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장성군 제공

“장성 푸드플랜 성공 재단법인 필요”

통합조직 운영 설명회

군민 88.9% “설립 찬성”

‘부자농촌’ 시너지 기대

장성군 푸드플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을 통한 관리하는 재단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민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푸드플랜 통합조직 운영방안 설명회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푸드플랜은 농산물의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계획해 소비자의 식탁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고품질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이를 시스템화하는 ‘장성형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축산식품부와 장성군, 농협, 군(軍)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모델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 사례다.

유두석 장성군수와 장성군의회 의원, 농업 관계자, 농업인 단체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푸드플랜 통합조직 운영방안 설명회에서는 ▲장성형 푸드플랜 추진 경과 보고 ▲외부 전문가(지역파트너플러스) 공익형 푸드플랜 통합운영 조직 필요성 사례 분석 ▲장성

푸드플랜 통합조직 공익형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어 군은 푸드플랜 관련 주민 설문조사 결과 88.9%가 재단법인 설립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은 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센터 등 푸드플랜 사업 전반을 총괄 운영할 공익형 통합운영조직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잘 사는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푸드플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결집시킬 수 있는 공공형 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장성군과 장성군의회, 농업, 농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강소농 온라인 마케팅 교육 호응

화순, 경영개선 마인드 향상·세무 등 추진

화순군이 최근 작지만 강한 농업인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운영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강소농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고객 확대 등 경쟁력을 키워가는 중소규모 가족농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과 소비 욕구가 변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경영개선 마인드 향상 교육과 농업분야 관련 세무 교육,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을 7차

레 추진했다.

농가 소득 10% 증대를 목표로 온라인 매체 활용 능력 향상에 필요한 SNS 연계 마케팅 기법을 농가별 맞춤형 실습으로 진행했다.

이어질 강소농 전문교육에서는 농가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온라인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지난 2011년 강소농 교육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총 434명의 강소농가가 참여한 농산물 홍보, 유통, 마케팅 등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해 농가 소득 10% 증대 등 성과를 거뒀다.

/화순=이종백 기자

‘아름다운 장성’ 군민과 함께 만든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활공간이 장성군민들의 손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읍·면에 꽃과 나무를 심는 등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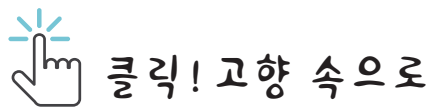
이는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경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장성군에서는 총 46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된 마을에는 2025년까지 매년 300만원 씩 총 900만원이 지원된다.

마을 주민들은 소규모 정원 조성과 함께 낡은 담장에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를 그리는 등 생활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경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반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담양 무정면, 어르신 사진 액자 전달

담양군 무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김동중)가 최근 무정면사무소에서 관내 장수 어르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앞서 협의체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사진을 촬영했으며 사진은 액자에 담아 24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사진을 받은 한 어르신은 “오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예쁜 모습을 보니 새롭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김윤철 무정면장은 “사진 촬영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장흥읍 지사협, 사랑의 광주리 전달

장흥군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현중·강경일)가 최근 ‘사랑의 광주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광주리 나눔 행사에는 밀반찬 3종, 과일, 기타 후원 물품인 요구르트, 쥬스, 피자, 라면 등을 담았다.

행사 당일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 등 4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밀반찬과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김현중 장흥읍장은 “어려운 이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나주경찰서, 범죄예방 예산 확보 설명회

나주경찰서가 최근 나주시의회를 방문해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CPTED사업 예산확보 치안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프리카스를 활용해 나주시 범죄를 예측 분석하여 범죄취약지역 CCTV·로고젝터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2년 CPTED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프리카스는 최근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이다. 특히, 경찰서에서는 범죄 불안환경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범죄예방 관리 구역’에 대해 CCTV, 비상벨, 보안등, 노면표지 등 시설물을 보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 및 나주시민들의 치안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나주=조충권 기자